

우리나라 주요산림해충의 발생특성

신상철, 박영석, 정영진, 권대성, 김준범, 박지두, 이범영

임업연구원 산림생물과

우리 나라 전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1998년도 산림해충의 발생면적은 371,187천ha에 달하고 있으며, 이들 중 솔잎혹파리, 미국흰불나방 등을 비롯한 주요해충이 심한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. 이들 해충 대부분은 과거에는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주요 해충의 발생과 그 확산에 따른 피해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유입종의 방제전략 수립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. 자료분석은 임업연구원에서 1968년부터 조사해 오고 있는 주요 산림해충의 발생상황 및 밀도변동 자료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. 분석을 위한 주요해충은 침입종 또는 침입종으로 추정되는 솔잎혹파리, 솔껍질깍지벌레, 미국흰불나방, 버즘나무방패벌레, 소나무재선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. 솔잎혹파리는 우리 나라에서 1929년 그 피해가 처음 보고된 이후 연간 4-8km의 속도로 확산되어 1990년대 말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, 솔껍질깍지벌레는 1963년 최초 피해발생이 알려진 후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으로 연간 3-6km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. 한편 미국흰불나방은 1958년 그 피해가 보고 된 이후 연간 7-14km의 속도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. 1995년 우리 나라에서 그 피해가 처음 알려진 버즘나무방패벌레는 연간 40-80km로 확산되어 불과 수년사이에 전국적인 발생을 하고 있다. 한편 자연확산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일어나는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에 그 피해가 처음 발견된 이후 인근지역으로 연간 평균 3-5km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.